민주 지방선거 공천 계파 전쟁 실태

열린우리계 “민주계 단체장 안돼”

여수·순천·광양 등 갈등 표면화

대선 후보 세불리기 대리 경쟁도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계파 경쟁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경쟁의 양상은 크게 열린우리계와 민주계 간 또는 대선 후보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혼재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계 대 민주계**=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대부분 열린우리계 국회의원에 (구)민주계 출신 기초단체장이 있는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에서 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정적인 기초단체장에게 공천장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은 현역 시장과 2위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심대한 상황이어서 현직 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무소속 출마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여수시는 열린우리계인 김성곤·주승용 의원이 지역을 양분해서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 반면 오현섭 시장은 민주계다. 문제는 중앙당에서 여수와 광주 남구를 전략지역으로 분류,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 하면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수의 한 시민은 “광주 남구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용납할 수도 있지만 여수의 경우 시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경쟁력 있는 타당 후보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명분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정 후보가 당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보장받았다는 소문과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두 국회의원과 오 시장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천의 경우는 민주계인 노관규 시장과 열린우리계인 서갑원 의원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해 오다가 최근 노 시장을 제외한 4명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단일화 추진을 선언 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 시장 측은 단일화 추진의 배후가 서 의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물론 서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 의원이 노 시장의 최대 역점 사업인 순천국제정원박람회를 끊임없이 비판해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역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광양도 열린우리계인 우윤근 의원이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뒷말이 무성한 곳이다. 지난달 상반기 9명의 지방의원 후보가 우 의원의 최측근인 서종식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 정가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계의 이성웅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 의원 측은 후보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반면, 보성의 경우는 현 정종해 군수가 열린우리계인 신중식 의원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나 민주계의 박상천 대표와 관계가 원만해 갈등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묘한 대비를 이뤘다.

◇**대선 후보 대리 경쟁**=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10명 가까운 후보가 나섰고 이 중 두 후보가 차기 대선주자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이용섭 의원의 경우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양형일 후보는 정동영 의원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

또 전남지사 후보군 중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정동영 의원계로 분류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경선 때 도움을 받았으며 이번 출판기념회에도 대선주자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반면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손학규 전 대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동구의 경우 광주시의원 후보 공천을 놓고 민주계가 주도권을 잡은 가운데 정동영 의원 계보의 인사들이 고전하는 형국이다. 서구는 김영진 의원과 전주언 구청장이 민주계인 반면 조영택 의원은 열리우리계여서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선 광주시의원 경선을 놓고 손학규계와 정동영계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에서는 열린우리계의 강기정 의원이 정세균 대표 직계로서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때문에 민주계인 송광운 청장이 바싹 긴장하고 있으며, 광산구에서도 광주시당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이 열린우리계 인사여서 민주계 출신 입지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담양군에서는 정동영계 후보인 최형식 전 군수와 민주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는 유창종 전 부군수 간 대결이 뜨겁고 구례군에서는 열린우리계인 현 서기동 군수 대 민주계인 전경태 전 군수와 박인환 전남도의회 의장이 경쟁하는 형국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산 구청장후보 첫 토론회 가보니

민주당 광주시당은 3일 오후 광산구청 7층 대강당에서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7명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토론회에는 각 예비후보 지지자들과 민주당 당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빈약한 단상, 뜨거운 단하

후보들 토론 보다 공약 나열…500여명 몰려 경선장 방불

주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은 중복되거나 빈약했고, 날카로운 토론과는 거리가 먼 정책발표회장을 연상하게 했다.

3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마련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의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돼 관심을 끌었다.

광산구청 7층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강박원, 김종오, 민형배, 유재신, 윤봉근, 이정남, 이정일 등 7명의 예비후보자가 나와 공방을 벌였다.

또 토론회에는 500여 명의 주민·당직자 등이 나와 발언을 끝낼 때마다 박수를 치며 연호해 경선장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광주비행장과 포사격장 이전문제, 도농복합도시 실현, 열악한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주고 받는 데 그쳤다.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정책,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아직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보다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후보 간에 ‘농담’도 건네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 경선 시민 참여폭 확대?

주말께 최종 결정…광주 북구·순천시도 시민배심원 도입 검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이 이번 주말께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민주당 일각에서 광주시장 공천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및 당원 전수조사 반영 비율을 일정 정도 낮추고 광주시민 참여를 폭을 넓히는 중재안이 부상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3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각종 현안들을 논의했으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일 밤 11시까지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광주시당 공심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시도당 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회의 직후, 정세균 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은 따로 자리를 갖고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등을 다시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되지 않으면 주말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당원 전수조사 반영 비율을 각기 50%에서 30%로 낮추고 시민 참여를 40% 정도 반영하는 중재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이 검토되는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은 광주 남구와 전남 여수시에 이어 최소 2~3곳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장, 광주시 북구와 순천시 등이 2차 시민공천배심원제 검토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최고위원회에 보고된 9곳은 1차 대상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30개 정도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추가로 지정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전남지사 후보 김대식 유력

정용화씨

김대식씨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호남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불모지’였지만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두자릿수에 육박하는 등 ‘가능성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는 만큼 여타 지역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준비에 나선 것.

먼저 한나라당은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정용화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을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출신인 정 전 비서관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자문위원과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 후보 등을 지냈으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달 청와대를 나왔다.

한나라당은 또 전남지사 후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대식 사무처장을 전략 공천한다는 방침이다. 영광이 고향인 김 사무처장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4일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일했고, 같은 해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인수위원을 역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